



우리시대 참스승

대경중학교 교장 남충현

“관리자 德目은 表裏不同·사랑·研究하는 자세”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 교육을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학생 생활지도 분야에 노후유를 축적하여 부임하는 학교마다 학생들이 자기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도해왔다고 생각한다”



한다. 그리고 그 근거에 따라 잘못을 범하게 되면 벌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 후에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케 한 뒤 벌을 가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치게 된다는 것이 남 교장의 생활지도 노하우다.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아무리 교장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교사가 앞장서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교장의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과 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교사로 하여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자로서 위신을 교사들에게 세워주었을 때 교사들이 따라 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남 교장은 개혁도 개혁의 주체가 개혁되지 않고 개혁을 시도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남 교장은 2005년 3월 신철학교인 대경중학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육군사관학교, 서울대학교, 예술의전당, 청와대 등 여러 곳을 방문하여 체험교육을 나선다. 이곳을 다녀온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크게 달라진다.

동기를 유발해 주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항상 성실하게 노력하자”를 생활신조로 삼아 한평생을 교육에 헌신해 온 남 교장은 학생들의 영여수준별 교육을 위해 늘 영여공부에 나서고 있다.

올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남 교장은 퇴임 후에는 송유수 성당에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에 나서고 싶다고 밝히는 남 교장에게서 참스승의 모습을 발견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학생 스스로 잘못 인식하고 있을 때 벌 줘야 한다

은 표리부동(表裏不同)을 말한다. 관리자가 최소한 지켜야 할 태도다. 또 관리자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없으면 학생이나 교사들을 이끌어 갈 수 없다. 관리자에게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교장이어야 한다. 또 관리자는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항상 연구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남 교장이 처음 교장으로 부임한 곳은 영북중학교다. 처음으로 관리자가 되었을 때 가장 뿌듯했던 것은 ‘내가 옳다고 믿었던 철학을 실천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이다. 영북중학교에 부임했을 당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것은 역시 학생들의 생활지도였다.

남 교장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 스스로 잘못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에 대해 남 교장

다하고 있다.

남 교장은 개인주의가 아닌 희생을 통한 국가공동체 건설을 위한 자세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으며 조상들이 어떻게 국가를 지켜온 정신을 잘 살려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남 교장은 장교생활을 통해 리더가 되는 꿈을 키워 왔다고 밝혔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남 교장은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패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 학교관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관리자의 길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포천중문의대 2005년도 學位수여식

김승조 교수 제1회 차광열의과학대상 수상자 선정

지난 21일 포천중문의대(총장 김병수)는 본교 현암기념관 대강당에서 2005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포천중문의대는 2명의 박사학위를 비롯한 일반대학원 석사 23명, 생명과학전문대학원 석사 12명, 대학의과학대학원 석사 17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13명 등을 배출했으며 의학과 41명과 간호학과 33명, 간호학사 특별과정 24명, 보건행정정보학부 16명이 학사 학위를 받았다.

또 포천중문의대 성광의료재단 의료원장 김승조 교수가 제1회 차광열의과학대상 수상자 선정되어 수상했다.

이정노 부총장은 “포천중문의대 대학은 의학 및 생명과학 중심으로 세계 학계에 공헌한 학풍을 기르기 위해 차광열 학원장의 이름으로 제정된 차광열의과학대상 제도를 신설했다”며 차광열의과학대상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정노 부총장은 “차병원 그룹과 포천중문의대 기관장 및 연구원 교수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산부인과학 연구와 부인암

연구,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장,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원장, 포천중문의대 분당 차병원 원장, 포천중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분당차병원 부인암종합진료센터 소장 겸 성광의료재단 의료원장을 맡고 있다.

터 소장으로 차병원 발전에 공헌한 김승조 교수를 제1회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차광열의과학대상 수상자인 김승조 교수는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의대 의학박사를 거쳐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산부인과 연구원, 룩펠러 대학 생식의학부

연구원,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장,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원장, 포천중문의대 분당 차병원 원장, 포천중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분당차병원 부인암종합진료센터 소장 겸 성광의료재단 의료원장을 맡고 있다.

연구원, 룩펠러 대학 생식의학부

연구원, 룩펠러 대학 생식의학부

연구원, 룩펠러 대학 생식의학부

연구원, 룩펠러 대학 생식의학부

연구원, 룩펠러 대학 생식의학부

연구원, 룩펠러 대학 생식의학부

연구원, 룩펠러 대학 생식의학부

優秀학생 유치위해 장학금 전달

포천종합고등학교 총동문회 장학회

포천종합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조성인) 장학회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조성인 총동문회장이 직접 중학교 졸업장장을 방문하여 장학금을 전달하여 홍보효과는 물론 재학생중 우수학생들의 포천종합고등학교 진학을 이끌어 주고 있다.

올해는 경북중학교 3학년 이담비 학생에게 100만원 등 모두 4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성인 동문회장은 “우수학생 유치하여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 중학교 졸업식에서 전달함으로써 포천종합고등학교의 자부심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재)포천종합고등학교 총동문회 장학회가 지급한 2006년도 장학금 대상자와 장학금내역이다.

▶이담비(경북중 3년) 100만원▶구순서(일동중 3년) 100만원▶문정규(포천중 3년) 100만원▶기준우(포천중 3년) 50만원▶유수원(관인중 3년) 50만원▶김수현(경북중 3년) 50만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